

'2024 하반기 충북 농촌공간 재구조화 워크숍'개최

충북도·충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

성지연 기자 wldus2916@gmail.com

기사입력 2024.11.26 17:51:33 최종수정 2024.11.26 17:51:33



- 2024 하반기 충북 농촌공간 재구조화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.

©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

[충북일보] 충북도와 충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(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)은 26일 청주시 글로스터호텔에서 '2024년 하반기 충북 농촌공간 재구조화 워크숍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'농촌공간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지원방안 모색'을 주제로 진행됐으며, 농촌공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.

최상만 농식품부 사무관의 '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방향'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△충북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원체계 구축 △충북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지원기관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이어졌다.

또한 '충주맨'로 잘 알려진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'충주시 SNS운영사례를 통한 농촌 홍보전략'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다.

충북도와 충북광역지원기관은 향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으로 인한 △제도의 안정적 정착 △충북도내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교육 △농촌공간계획 수립지원 등 New Ruralism(새로운 농촌)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/ 성지연기자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